

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

VIP 리포트

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

 **현대경제연구원**

발행인 : 하 태 형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백흥기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(02-2072-6224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

Executive Summary	i
1. 개 요	1
2.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	2
3.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추락의 배경	4
4. 시사점	9
【HRI 경제 통계】	13

< 요약 >

■ 개요

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국가 총 생산성과 직결된다. 서비스업은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57%를 담당하여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면 전체 경제성장률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근접하는 '보몰의 성장 질병(Baumol's growth disease)'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. 이에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 및 배경을 선진국과 비교해보고 취약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.

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

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제조업에 못 미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. 2013년 현재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만 6,558원(2005년 불변가격 기준)으로 제조업(3만 5,161원)의 47.3% 수준에 불과하다. 또한 최근 10년간(2004~2013년)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.7% 증가한 반면,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.6% 증가에 그침에 따라 '서비스업 노동생산성/제조업 노동생산성' 비율이 2004년 67.3%에서 2013년 47.1%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.

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·일본·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,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. 2009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약 13.3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55.3달러의 24%에 불과하다. 또한 '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/미·일·독 서비스업 노동생산성' 비율은 2000년 31%에서 2009년 24%로 하락하고 있다.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17.7달러로 미국(34.7달러), 일본(28.1달러), 독일(38.3달러) 대비 낮다.

■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취약의 배경

(시장 규모) 내수시장의 협소성과 외수시장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약되고 있다. 한국의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는 총 내수시장의 36.8%인 1조 달러에 불과하다. 반면 미국의 서비스 내수시장은 18조 9천억 달러로 총 내수시장의 68.9%를 점유하며 독일은 6조 4천억 달러(총 내수시장의 56.9%), 일본은 3조 7천억 달러(총 내수시장의 56.8%)로 한국을 상회한다.

(생산 구조) 서비스업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산화율 또한 저조하다. 2011년 서비스업 중간투입률(중간투입액/총투입액)은 일본이 35.1%, 독일 36.5%, 미국 37.6%인 반면 한국은 41.0%로 높아 동일한 금액을 생산하더라도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다. 서비스업 중간재의 국산화율(국산중간재/중간투입액)은 한국 84.3%, 일본 95.3%, 미국 93.0%, 독일 86.3%로 한국이 가장 저조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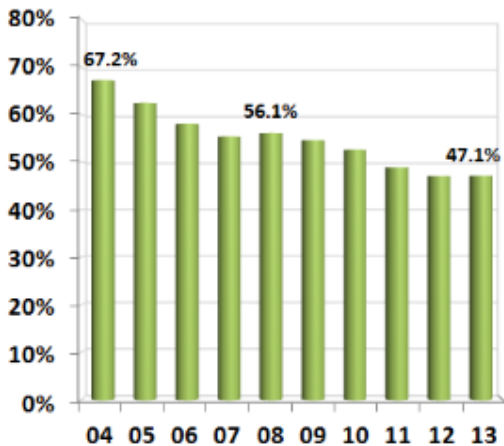
(노동 투입 및 배치) 서비스업 고용흡수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력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입된 노동력은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. 2000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은 한국이 57.0%와 61.2%로 4.2%p의 격차를 보였으

나 2009년에는 13.3%p로 확대된 반면, 미국·일본·독일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간 격차가 5%p 미만이다. 한국의 저생산성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04년 53.4%에서 2013년 57.5%로 노동력이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.

(자본 투입 및 활용) 서비스업의 낮은 자본 장비율 및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. 한국의 서비스업 자본장비율(자본스톡/취업자수)은 2009년 기준 1인당 약 9만 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38만 달러, 독일은 35만 달러, 미국은 22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을 상회한다.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출되는 연구개발투자 역시 한국은 1인당 약 197달러로 미국의 1/3 수준에 불과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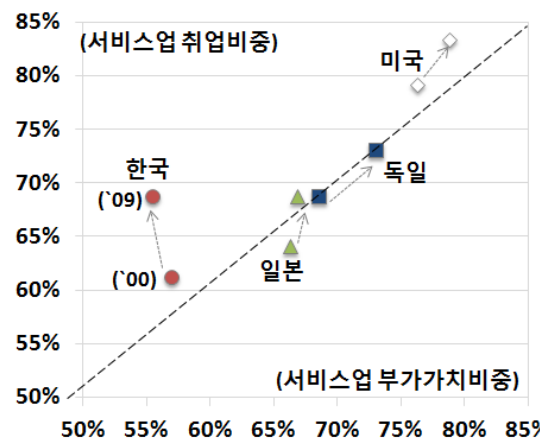
(여타 산업과의 연관성) 서비스업이 타 산업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가 낮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하다. 한국은 전체 최종재 생산을 위한 서비스업 투입 비중이 약 15.7%로 미국(26.5%), 독일(25.8%), 일본(21.1%) 대비 낮아 타 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업의 활용도가 저조하다.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업 활용도가 약 10.3%로 독일(22.4%), 미국(19.0%), 일본(16.0%)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하다.(2011년 기준)

<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한국은행, 통계청, 고용노동부 통계를 이용).
 주: 노동생산성 = 부가가치/총근로시간, 취업자수 기준, 2005년 불변 가격 기준.

<한·미·일·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서비스업 취업비중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OECD 통계 이용).
 주: 1) 2000년 불변 가격 기준.
 2) '00년 대비 '09년(일본은 08년) 비교.

■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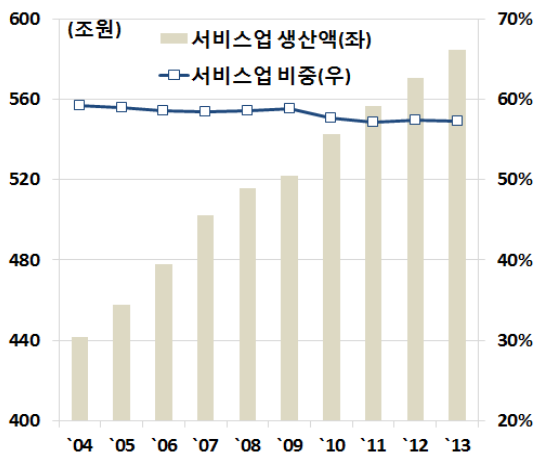
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, 협소한 내수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. **둘째,** 서비스업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. **셋째,** 서비스업에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집중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 **넷째,** 서비스업 자본 축적 및 R&D 투자 확대를 기술 개발 및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. **다섯째,**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강화 및 산업간 융·복합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.

1. 개 요

○ (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의 의의)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국가 총 생산성과 직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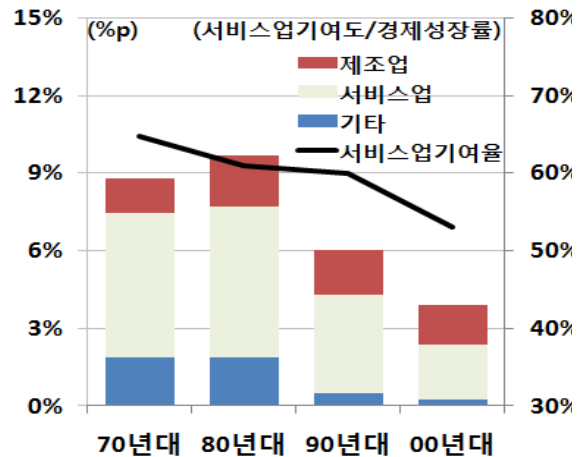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은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의 57%를 점유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은 산업
 - 2012년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약 585조원으로 총 부가가치 창출액의 57.3%
 - 일반적으로 경제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
-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전체 경제성장률이 서비스업 부문으로 근접하는 '보몰의 성장 질병(Baumol's growth disease)' 현상¹⁾²⁾이 나타남
 -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90년대 1.7%p에서 2000년대 1.5%p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,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3.8%p에서 2.1%p로 급락
 - 이에 따라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(서비스업 생산 증가액/GDP증가액)은 90년대 60%에서 2000년대 53%로 하락함

<서비스업 부가가치 생산 비중>



자료: 한국은행.
주: 실질가격 기준.

<주요 산업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(국민계정 통계를 이용).
주: 기간중 평균이며 '00년대는 2000~2012년.

○ (연구목적)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 및 배경에 대해 미국·독일·일본과 비교해보고 생산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

1) 부문간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면 침체된 부문으로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성장이 저해된다는 이론(Baumol(1967), Baumol et al(1985)). 한국은행, "산업 구조 변화와 경제성장: 국가별 보몰효과 분석을 중심으로", 금융경제연구 2011.1 참조.

2.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

○ (제조업과의 비교)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제조업에 못 미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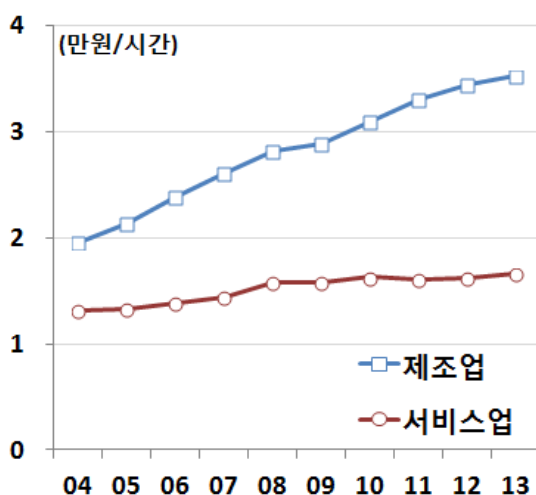
- 2013년 현재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1만 6,558원으로 제조업의 47.3% 수준에 불과

- 2013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(취업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, 이하 2005년 불변가격 기준)은 1만 6,558원임
-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제조업(3만 5,161원)의 47.3% 수준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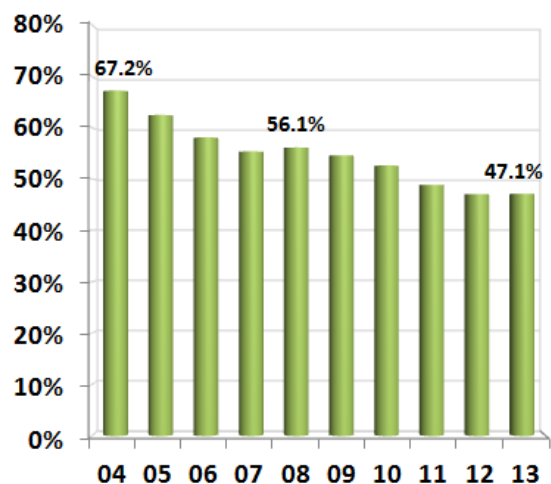
- 최근 10년 동안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제조업에 못 미쳐 서비스업 노동생산성/제조업 노동생산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

-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4~2013년 연평균 6.7% 증가한 반면,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같은 기간 연평균 2.6% 증가에 그침
- 이에 따라 '서비스업 노동생산성/제조업 노동생산성' 비율은 2004년 67.3%에서 2013년에는 절반 미만 수준으로 하회함

<서비스업 및 제조업 노동생산성>



<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한국은행, 통계청, 고용노동부 통계를 이용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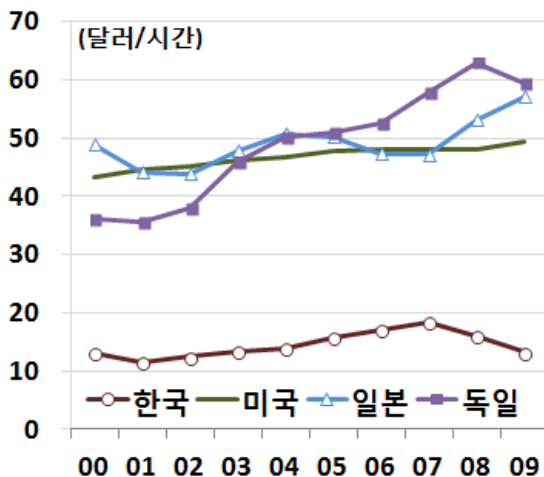
주: 노동생산성 = 부가가치/총근로시간, 취업자수 기준, 2005년 불변 가격 기준.

○ (선진국과의 비교)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·일본·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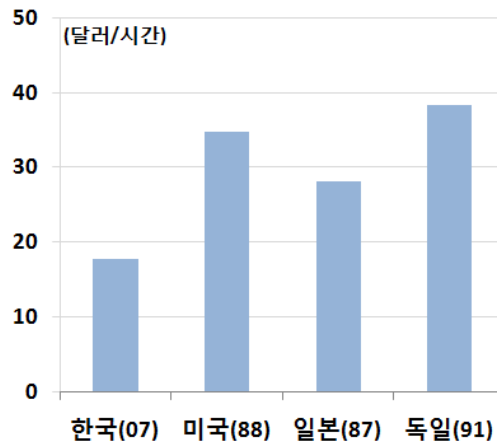
- 2009년 현재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·일본·독일의 약 24% 수준
 - 한·미·일·독의 노동생산성(이하 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, 2005년 불변가격 달러 기준)을 추정해보면, 2009년 현재 한국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3.3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55.3달러의 24%임
 -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/미·일·독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0년 31%에서 2009년 24%로 하락하는 모습임

-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도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·일·독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
 - 1인당 GNI가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한국(2007년)이 31.7달러로 미국(1988년)의 23.6달러, 일본(1987년)의 22.2달러보다 높고 독일(1991년)의 32.6달러와 비슷한 수준임
 - 그러나 동일한 시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17.7달러로 미국(34.7달러), 일본(28.1달러), 독일(38.3달러)에 미치지 못 하는 수준임

<한·미·일·독 서비스업 노동생산성>



<주요국 국민소득 2만달러 시기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OECD, EU-KLEMS,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).

주: 노동생산성 = 부가가치/총근로시간, 피고용자 기준, 2005년 불변 가격 기준.

3) 현대경제연구원(2013), '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', 경제주평 14-13 참조.

3.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취약의 배경

○ (시장 규모) 내수시장의 협소성과 외수시장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력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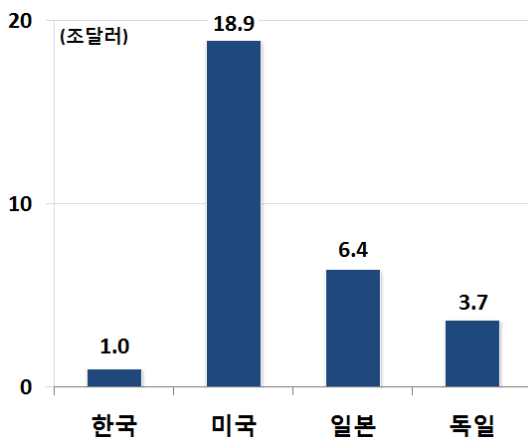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가 미국·독일·일본 대비 협소하며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는 총 내수시장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

- 한국의 총 내수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조 8천억 달러이며, 이 중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는 총 내수시장의 36.8%인 1조 달러 수준에 그침
- 반면 미국의 서비스 내수시장은 18조 9천억 달러로 총 내수시장의 68.9%를 점유하며 독일은 6조 4천억 달러(총 내수시장의 56.9%), 일본은 3조 7천억 달러(총 내수시장의 56.8%)로 한국을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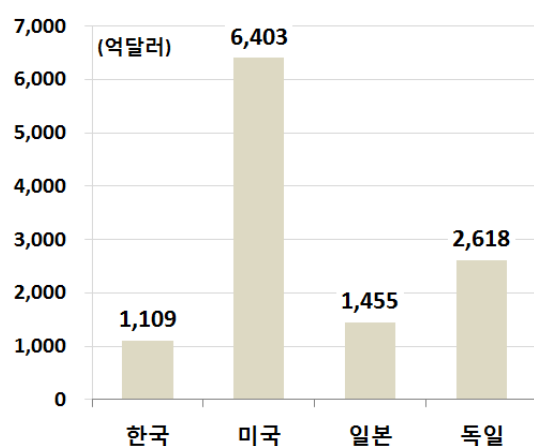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 외수(수출)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이 미국·독일 대비 낮은 수준

- 한국의 서비스업 외수(수출)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 약 1,109억 달러로 미국(6,403억 달러), 독일(2,618억 달러) 대비 매우 낮은 수준
- 서비스업 외수(수출)시장 점유율은 2012년 한국이 2.5%인 반면 미국은 14.5%, 독일은 5.9%, 일본은 3.3%로 집계

<서비스업 내수시장 규모(2011년)>



<서비스업 외수시장 규모(2012년)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세계 산업연관표 통계를 이용).

주: 내수시장 = 총산출 - 수출 + 수입.

자료: UNCTAD.

주: 외수시장 = 수출.

○ (생산 구조) 서비스업 생산 과정에서 미·일·독 대비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며 중간재의 국산화율 또한 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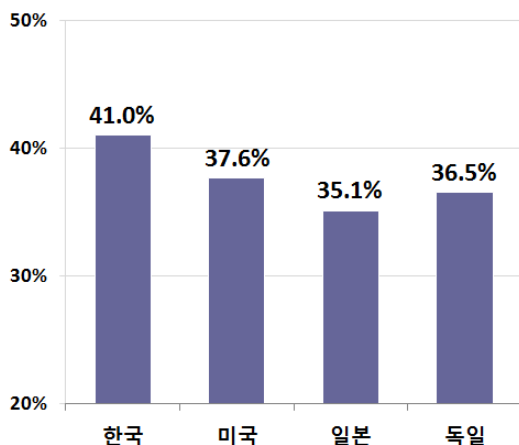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미국·일본·독일 대비 부가가치 창출이 낮음

- 서비스업 중간투입률(서비스업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, 원료 등의 비율)은 일본이 35.1%, 독일 36.5%, 미국 37.6%인 반면, 한국은 41.0%로 미·일·독 대비 높음
- 중간투입률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율이 낮아(중간투입률+부가가치율=1) 총산출액 단위당 부가가치창출액이 낮음을 의미하므로 동일한 금액을 산출할 경우에도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음

- 서비스업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미국·일본·독일 대비 가장 저조한 상황

- 서비스업 중간재의 국산화율은 일본이 95.3%, 미국 93.0%, 독일 86.3%인 반면 한국은 84.3%로 3국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
-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낮을수록 생산 과정에서 국산재보다는 수입재 투입에 의존함을 의미하므로 서비스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제약하여 생산성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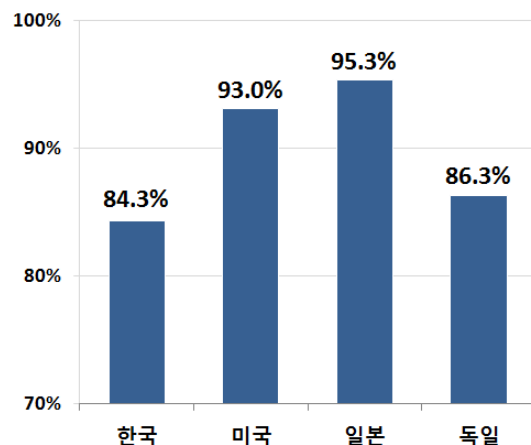
<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(2011년)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(세계산업연관표 통계를 이용).

- 주: 1) 중간투입률=(중간투입액/총투입액)×100
 2) 중간투입률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창출력이 낮음.

<서비스업 중간재의 국산화율(2011년)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(세계산업연관표 통계를 이용).

- 주: 1) 국산화율=(국산중간재/중간투입액)×100
 2) 국산화율이 높을수록 생산 과정에서 수입재보다 국산재 투입에 의존.

○ (노동 투입 및 배치) 서비스업 고용흡수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력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입된 노동력은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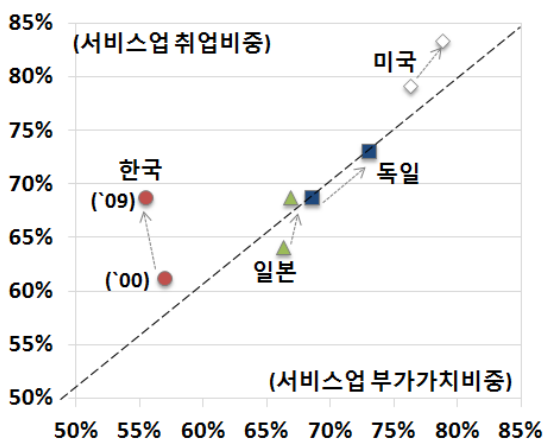
- 한국은 서비스업의 고용흡수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력 유입으로 서비스업 부가가치 창출력과 취업자 비중 간 괴리가 확대되는 불균형 발생

- 2000년 한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은 57.0%와 61.2%로 그 격차가 4.2%p이었으나 2009년에는 13.3%p로 격차가 확대
- 반면 미국과 일본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 간 격차가 5%p 미만이었으며 독일은 격차가 거의 없어 균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

- 한국은 저생산성 서비스업에 고용이 집중되어 있고 집중도가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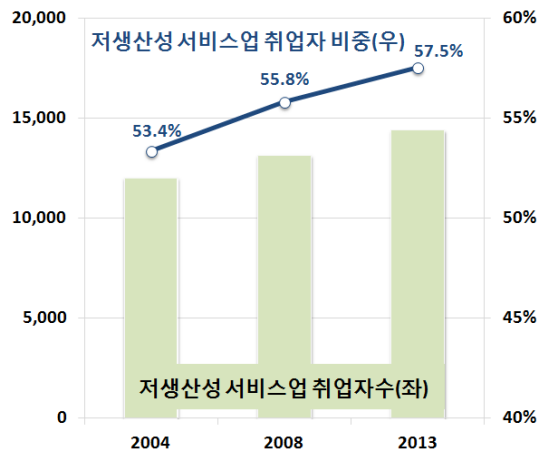
- 지난 10년간 제조업 취업자 수는 약 4,000명에서 등락 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저생산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가 2004년 약 12,000명에서 2013년 약 14,000명까지 상승
- 저생산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은 2004년 53.4%, 2008년 55.8%, 2013년 57.5%로 상승하는 추세

<한·미·일·독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서비스업 취업비중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OECD 통계 이용).
 주: 1) 2000년 불변 가격 기준.
 2) '00년 대비 '09년(일본은 08년) 비교.

<한국의 저생산성 서비스업4) 취업자수와 비중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고용노동부 통계 이용).
 주: 저생산성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= 저생산성서비스업 취업자 수/총 취업자수.

4) 서비스업 중 제조업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기록하는 업종(부동산·임대, 금융보험, 정보통신, 공공행정·국방)을 고생산성 서비스업으로, 제조업 노동생산성을 하회하는 업종(문화오락, 교육, 운수·보관, 보건·사회복지, 사업, 도소매·음식숙박)을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분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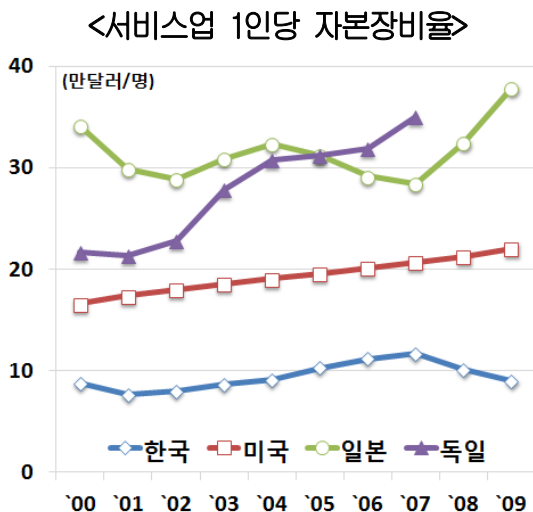
○ (자본 투입 및 활용) 서비스업의 낮은 자본 장비율 및 연구개발투자로 노동 생산성 개선의 걸림돌

- 서비스업의 1인당 자본장비율이 미국·일본·독일 대비 낮은 수준

- 자본장비율(자본스톡/취업자수)를 통해 취업자 1인당 어느 정도의 노동장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분석
- 한국의 서비스업 자본장비율은 1인당 약 9만 달러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9만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(2009년 기준)
- 일본의 서비스업 자본장비율은 1인당 약 38만 달러이며 독일은 약 35만달러, 미국은 약 22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 대비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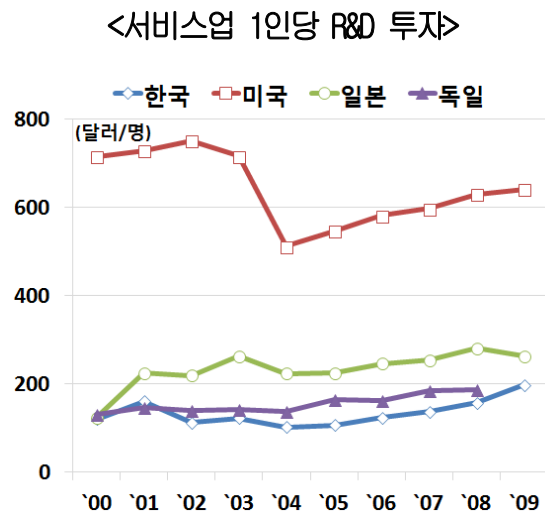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출되는 연구개발투자 역시 한국은 미국 대비 절대적 열위

- 한국의 서비스업 R&D 투자는 1인당 약 197달러 수준으로 미국의 1/3 수준에 불과(2009년 기준)
- 한국은 2000년 당시 일본과 1인당 서비스업 R&D 규모가 약 120달러 수준으로 비슷했으나 이후 격차가 확대되어 2009년에는 일본의 약 75%에 불과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(세계 산업연관표 통계 이용).

주: 1) 1인당 자본장비율=자본스톡/취업자수.
2) 독일은 자료미비로 2007년까지 분석.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(OECD STAN 통계 이용).

주: 1) 1인당 R&D투자=R&D투자/취업자수.
2) 독일은 자료미비로 2007년까지 분석.
3) 민간 R&D투자 기준.

○ (여타 산업과의 연관성) 서비스업이 타 산업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가 낮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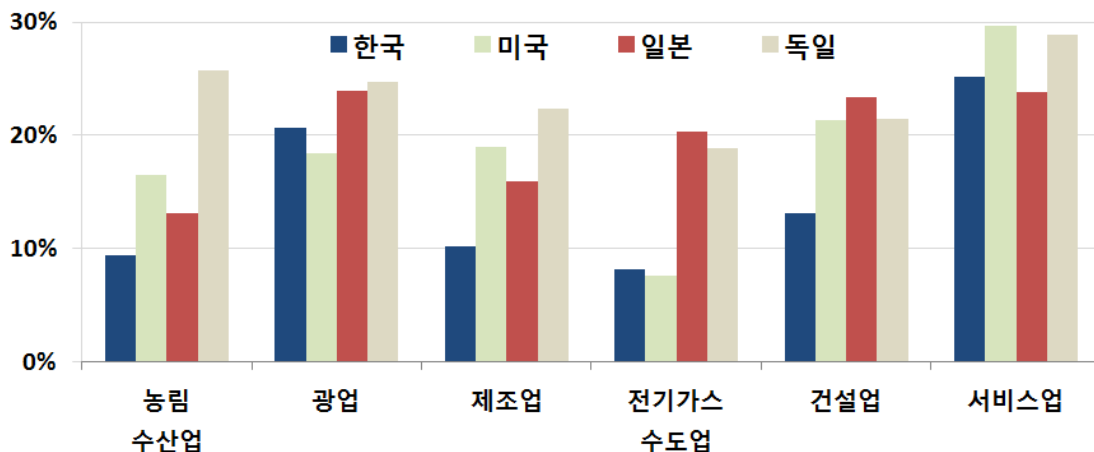
- 최종재 생산을 위한 서비스업의 투입 비중이 미국·일본·독일 대비 낮아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의 활용도가 저조

- 한국은 전 산업의 최종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약 15.7%로 분석
- 반면 미국은 26.5%, 독일 25.8%, 일본 21.1%로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비중이 한국 대비 높음

-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미국·일본·독일 대비 취약

- 각 산업별 최종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중간재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통해 산업별 생산과정에서 서비스업 활용도를 살펴본 결과,
- 농림수산업은 9.4%, 광업은 20.7%, 전기·가스·수도업은 8.2%, 건설업은 13.1%, 서비스업은 25.1%로 분석(2011년 기준)
- 특히 독일은 제조업 생산을 위한 중간재 중 서비스업이 약 22.4% 투입되며 미국은 19.0%, 일본은 16.0%임에 비해 한국은 10.3% 투입에 그침

<산업별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 활용도(2011년)⁵⁾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(세계 산업연관표 통계 이용).

주: 1) 산업별 생산 과정에서 서비스업 활용도

= 각 산업 생산에 중간재로서 투입된 서비스업 / 각 산업의 총산출

2) 서비스업 활용도가 높을수록 해당 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관계가 높음을 의미.

5) 서비스업 중에서도 주로 운송, 금융 및 사업 서비스업이 최종재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.

4. 시사점

첫째, 협소한 내수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.

- 서비스업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과거 제조업의 성공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모
- 서비스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수출 인큐베이터 정책의 홍보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
- 특히, 아시아 신흥국 지역에서 지리적, 문화적 근접성과 한류 현상 등 한국의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의 해외 수출 전략 수립을 검토
 - 한류 현상을 관광, 의료, 문화, 교육 관련 서비스업에 활용할 경우 차별화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둘째, 서비스업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.

- 중간재 투입 의존도를 낮추고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
- 서비스업 생산 과정에서 중간재로 투입되는 기계 및 운송 설비의 기술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선진 기술 및 노하우 등을 체화한 서비스 전문가를 육성해 서비스업 중간재의 국산화율을 높여야 함

셋째, 서비스업에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집중된 노동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.

- 서비스업의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에 있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본의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이 노동생산성 제고의 선결조건
- 고부가가치형 고용 창출 및 직무 홍보, 취업 알선 프로그램 개발, 재취업자의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전체 고용의 70% 이상을 담당하는 서비스업 내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

넷째, 서비스업 자본 축적 및 R&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기술 개발 및 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.

-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으로 인해 노동력의 추가 투입만으로는 생산성 증가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추가적인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수반될 필요
- 정부의 서비스업 R&D 지출을 확대하고 민간 R&D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요인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

다섯째,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강화 및 산업간 융·복합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.

- 지금까지 서비스업 성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에 기인해 발전해왔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타산업의 생산 활동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필요
-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결합 및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이 서비스업에 파급되는 효과를 도모하고 산업간 융·복합 상품을 개발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함 **HRI**

백다미 선임연구원 (dm100@hri.co.kr, 02-2072-6239)

주 원 수석연구위원 (juwon@hri.co.kr, 02-2072-6235)

【별첨】 노동생산성의 의미

- 노동생산성이란 노동투입 한 단위당 생산되는 부가가치로 정의되나 특정 부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

$$\cdot \text{노동생산성} = \frac{\text{부가가치}}{\text{노동투입량}}$$

- 노동생산성은 다른 생산요소 투입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 단순히 부가가치를 노동투입량을 나눈 것임
 - 한편, 부가가치 생산의 변화는 노동 투입뿐 만이 아니라 자본, 기술 진보 등 다른 생산요소 투입량과 생산요소 간의 상충 및 시너지 효과 등에도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됨
 - 따라서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생산에 대한 노동투입 만의 기여를 의미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 투입을 통해 해당 부분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판별할 수 있는 의의가 있음
- 노동생산성 지표는 노동투입량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인당 생산성과 (근로)시간당 생산성으로 구분되며 본 보고서에서는 시간당생산성을 사용
 - 인당생산성은 노동투입량을 취업자수로 정의하며, 시간당생산성은 총근로시간(취업자수 × 평균근로시간)을 사용함
 - 경제적 효율성, 기업의 비용 부담, 기회비용 등의 관점에서 인당생산성보다 시간당생산성이 산업 효율성을 판별하는데 더 적합한 지표로 판단됨

< 생산성의 개념 >

- 생산성은 생산요소 한 단위 투입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함
- 투입되는 개별 생산요소량에 따라 자본생산성, 노동생산성 등의 단일요소생산성(partial factor productivity)과,
- 생산요소 투입량간의 시너지 효과,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,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생산요소 등의 영향에 의해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(total factor productivity)으로 구분됨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구분	2011	2012	2013					2014 연간(E)		
			1/4	2/4	3/4	4/4	연간			
국민계정	경제성장률(%)	3.7	2.3	2.1	2.7	3.4	3.7	3.0	3.8	
	민간소비(%)	2.9	1.9	1.7	2.1	2.1	2.2	2.0	2.7	
	건설투자(%)	-3.4	-3.9	1.9	9.8	8.8	5.4	6.7	2.5	
	설비투자(%)	4.7	0.1	-12.7	-3.9	1.5	10.9	-1.5	6.7	
대외거래	경상수지(억 \$)	261	481	100	198	190	220	707	490	
	통관기준	무역수지(억 \$)	308	283	56	144	108	133	441	370
		수출(억 \$) 증감률(%)	5,552 (19.0)	5,479 (-1.3)	1,353 (0.4)	1,412 (0.7)	1,368 (2.7)	1,464 (4.7)	5,596 (2.1)	6,067 (8.4)
	수입(억 \$) 증감률(%)	5,244 (23.3)	5,196 (-0.9)	1,297 (-3.0)	1,267 (-2.8)	1,260 (0.3)	1,331 (2.5)	5,156 (-0.8)	5,697 (10.5)	
		소비자물가 상승률(%)	4.0	2.2	1.6	1.2	1.4	1.1	1.3	2.4
	실업률(%)	3.4	3.2	3.6	3.1	3.0	2.8	3.1	3.1	
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	1,108	1,127	1,085	1,123	1,111	1,062	1,095	1,070		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